

‘꽃처럼 피어나는 병영’...강진 병영면 어르신 패션쇼

병영면 성동리 옛 양곡창고서 4부 나눠서 진행 “주민참여 도시재생 진정한 의미 엿보는 계기”

“패션쇼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내가 무대에서 걸어 나올 때 사람들이 박수쳐주니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도 하고,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강진군 병영면에 사는 황정숙씨의 패션쇼 참여 소감이다.

지난 18일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의 옛 양곡창고에 주민 100여명이 모였다. 병영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한 패션쇼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 패션쇼를 시작으로 ▲ 주민 화보 전시 ▲ 청년예술인 소규모 음악공연 ▲ 추억의 주전부리 ▲ 즉석사진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패션쇼는 ‘꽃처럼 피어나는 병영’이라는 주제로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다. 병영상인, 레트로 꽃 등 병영면의 문화자원을 테마로 4부로 나눠 진행됐고, 흥겨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명이 가득한 무대 위로 어르신들이 걸어나올 때 마다 큰 호응이 이어졌다.

패션쇼를 진행하기 앞서 지난 10월부터 홍보를 통해 어르신 모델을 섭외했고 어르신들과 발을 맞추는 청년들까지 힘을 보태면서 약 40여명의 주민모델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행사를 진행한 강진 청년협동조합원들의 대표이자 병영면에서 청년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장성현 대표는 “평범한 행사가 아닌, 주민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고 싶었다”며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다시 피어나는 병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주민화보 전시는 병영면에 사는 5세 유아부터 90세 어르신까지 50여명의 주민들 모습을 담았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3일과 4일, 병영면 5일장을 비롯해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해 사전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된 주민들의 모습은 전시는 물론 화보집으로 발간돼 12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음악공연에서는 강진군에서 활동 중인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해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 외에도 마을 빈집에서 버려진 나무를 재활용해 만든 ‘희망나무 포토존’을 조성해 방문객들을 위한 무료 사진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의미있는 내용들로 운영됐다.

행사를 주관한 병영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참여 도시재생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며 “오늘처럼 특별한 문화행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의 재능기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밀착형으로 이뤄질 때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기획을 통해 지역에 활력이 북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 유자 수확 한창...올해 2700톤 생산

해풍 맞고 자라 과피 두껍고 새콤한 맛·부드러운 향 일품

완도군 고금면에서는 유자 수확이 한창이다. 유자 수확은 12월 초까지 하며, 올해 예상 수확량은 2,700톤이다.

고금면은 유자 주산지로 유자 재배 면적은 205ha로 전국 재배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고금 유자 가격은 10kg당 일반 유자는 70,000원, 무농약 유자는 90,000원, 유기농 유자는 120,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완도 유자는 풍부한 일조량, 해풍을 맞고 자라 다른 지역 유자보다 과피가 두껍고, 새콤한

맛과 부드러운 향이 일품이다.

유자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 이상 들어 있어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다.

피로를 방지하는 유기산도 다양 함유하고 있다. 껍질에 들어 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헤스페리딘’은 혈액 순환 촉진, 뇌혈관 질환 예방, 고혈압 예방 등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유자의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려면 껍질이 포함된 유자청이나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김성 장흥군수, 현안사업 유치로 ‘지속 가능한 발전’ 총력

장애인 해양선수촌·천관산 등산학교 등 현안사업 예산 증액 요청

김성 장흥군수가 17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해당 사업 예산증액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군수는 예산결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강훈식 간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예산건의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남부해양선수촌 유치, 천관산 등산학교 조성,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단지 조성 등 3건이다.

이에 앞서 장흥군은 활발한 예산 활동을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5개 사업, 861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남부해양선수촌은 장흥군산삼산리 일원에 장애인 해양스포츠 훈련장 조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조정, 카누, 트라이애슬론, 워터 마라톤 등 종합 해상 훈련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장흥군은 연중 온화한 기후와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에 따른 스포츠 교육 인프라 확대, 청정 남해안 해안가를 훈련장 조성의 장점으로 꼽았다.

천관산 등산학교는 등산과 트레킹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다.

장흥군은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포츠 클라이밍, 강의실, 생활관 등을 만들고, 이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이끌어 갈 방침이다.

천관산은 산림청 소관의 대규모 국유림이 있고, 남도 연계관광에 적합해 등산학교 입지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는 산림에서 유래하는 천연물질과 바이오 산업체, 임가의 소득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김성 군수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유망인구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오는 27일까지 단속...부정 유통 확인시 행정·재정적 처분

진도군이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사전 조사 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금 취소 ▲부당이익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진도아리랑 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